

『四庫全書總目』史部の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 연구*

- 史志目錄의 史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istorical Sector of *Sago Jeonseo Chongmok(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 Centering on the Description in 'Saji Mongnok(Catalogues of Chinese History Books)' -

趙永來 (Cho, Yong-Lae)**

◁ 목 차 ▷

1. 서론	4.1 「總目」史部の 類目과 子目
2. 史志目錄의 형성과 史部출현	4.2 「總目」史部와 「隋志」의 類目 비교
2.1 史志目錄의 의미와 범주	4.3 「總目」史部와 諸목록서 史部類目の 비교
2.2 도서분류법의 변화와 史部の 출현	4.4 「總目」史部の 구성적 특징
3. 「正史」史部の 類目과 著錄형태	5. 소결
3.1 正史」史部の 類目 비교	<참고문헌>
3.2 正史」史部の 著錄형식 비교	
4. 「總目」史部와 類目の 구성	

< 초 록 >

중국고대에는 도서 분류를 학문연구와 학술 분류의 기초로 삼았고 이는 목록학연구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清代에 이르러 중국목록학의 학술의 원류와 학설의 추이를 기술하는 경향으로 발전했고, 목록학은 도서 분류의 중심이 되는 類例를 근간으로 학파와 학술의 기원, 맥락을 파악하는 준거가 되었다. 청대 저술된 『四庫全書總目』은 經史子集의 四部로 도서를 분류했다. 본서는 역대 도서 분류와 관련된 가장 저명한 목록학 저술중의 하나로서, 중국 역대 목록학 저술의 집대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四庫全書總目』史部の 史書 관련 도서의 분류는 그 기원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史志目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사지목록이란 원래 중국 正史의 체례 중 ‘志’에 해당하는 『經籍志』, 『藝文志』 등의 목록서를 지칭한다. 사지목록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類例의 기원과 전승관계가 복잡해서 목록학적인 시각과 함께 통사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우선 사지목록의 저록을 장서목록과 서목의 형태라는 관점에서 그 체례를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總目』史部の 도서 분류 체계의 기원과 類目の 설치가 역대 사지목록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正史』史部に 속한 類目과 子目を 역대 저술된 官修와 私撰의 목록서를 서로 비교하여 이들의 분류체계와 類目이 어떻게 신설·증설·폐지되면서 『總目』史部の 類目으로 전승되었는지 그 과정을 고찰했다. 끝으로 『總目』史部の 類目과

*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실행하는 보호학문의 일원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 경희대학교 사학과 연구교수(is815@hanmail.net)

접수일: 2009년 12월 9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17일

子目的 설치과정을 ‘凡例’와 史部の “敍”를 통해 분석하여 『總目』이 “形態書誌學”의 지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要語: 중국목록학, 도서분류, 史志目錄, 『四庫全書總目』, 史部, 類例, 類目

<ABSTRACT>

In the ancient China, classification of books was the basis of academic research and classification of academic fields, and became the foundation of bibliographical studies. In the Qing Dynasty, such tradition had developed to describe the academic origin and theoretical trend of bibliographical studies in China, and the bibliography became a standard to figure out the origin, development and context of academic schools and doctrines.

Sago Jeonso Chongmok(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compiled in the Qing Dynasty classified books into four classes, that is, Confucius Classics, History, Miscellaneous Subjects, and Collection of Writings. It,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bibliographical works related to classification systems of books, is valued as the most comprehensive compilation of Chinese bibliographical works ever compiled. The Class of History in ‘Sago Jeonso Chongmok’ was originated from long time ago and largely influenced lby ‘Saji Mongnok(Catalog of Chinese History Books)’. ‘Saji Mongnok’ means the catalogs contained in ‘Ji’ which was one part of Chinese official history, including ‘Gyeongjeokji’, ‘Yemunji’, etc. Since there are various types of ‘Saji Mongnok’ and the origins and relations of their examples are complex, an approach from both bibliographic and comprehensive historical views are required.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entries of ‘Saji Mongnok’s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relation to the styles of bibliographies and catalogs. With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origin of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organization of subclasses of the Class of History in ‘Sago Jeonso Chongmok’ were originated from ‘Saji Mongnok’. And by comparing the subclasses and entries of ‘Jeongsa(Authentic History)’ with various official and private bibliographies, it was examined how their classification systems and entries were newly formed, added, and deleted, and then passed down to the Class of History in ‘Chongmok’. Finally, by analyz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ubclasses and entries of the Class of History in ‘Chongmok’ through its explanatory notes and prefaces, the possibility of approaching ‘Chongmok’ from the viewpoint of ‘analytical bibliography’ is also discussed.

Key words: Four Bibliographic Categories Comprehensive Table of Contents, catalogues of history books, Chinese classical catalogue science, Classification of the Four Branches. description format

1. 서론

중국고대에는 도서 분류를 학문연구와 학술 분류의 기초로 삼았고 이는 목록학 연구의 근간이 되었다. 도서 분류가 분명하면 학술도 자명해진다는 鄭樵의 언급¹⁾ 이래, 이런 전통은 청대에 이르러 중국목록학의 핵심인 학술의 원류와 학설의 추이를 기술하는 경향으로 발전했다.²⁾ 즉 목록학은 도서 분류의 중심이 되는 類例를 근간으로 학파와 학술의 기원, 맥락을 파악하는 준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목록학의 연구 가운데 도서 분류는 학문연구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특정시기의 지식과 그 분류체계를 반영했다. 「四庫全書總目」(이하 「總目」으로 약칭)은 역대 도서 분류와 관련된 저술 중에 가장 저명한 목록학 저술이다. 목록학적 의미에서 「總目」의 일독을 통해 학술연구의 방법과 도서 분류체계의 공정성을 알 수 있다는 것 외에도,³⁾ 또한 역대 목록학 저술의 집대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

「總目」史部 도서 분류는 그 기원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史志目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지목록이란 중국 正史의 체제 중 「經籍志」, 「藝文志」 등에 수록된 목록서이다.⁵⁾ 사지목록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類例의 기원과 전승관계가 복잡해서 목록학적인 시각과 함께 통사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總目」史部の 도서 분류 체계의 기원을 역사적 관점에서 類例의 전승과 편목의 구성에 주목했다.

1) 鄭樵, 「通志」卷71 校讐略: “類例既分, 學術自明.”

2) 章學誠 著 王重民 通解, 「校讎通義」: “校讎之義, 盖自劉向父子部次條別, 將以辨章學術, 考鏡源流.”

3) 周中孚 著, 黃曙輝 標校, 「鄭堂讀書志」卷32: “將《四庫全書提要》讀一過, 卽略如學問門徑矣. … 門類之允當, 議論之公平, 莫有過於是編.”

4) 張傳峰, 「四庫全書總目學術思想研究」(學林出版社, 2007).

5) 중국고대 목록서의 종류에 관해서는 “史志目錄” 이외에 “官藏目錄,” “專科目錄,” “著述目錄,” “官修目錄,” “私家目錄,” “版刻書目,” “禁書目錄” 등의 구분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倪士毅의 「中國古代目錄學史」(杭州大學出版社, 1998)와 來新夏의 「中國目錄學概論」(中華書局, 1991), 千惠風, 「韓國書誌學」(民音社, 199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필자는 특히 『總目』의 이러한 평가에 주목하면서 『總目』의 근간을 이루는 經·史·子·集部 가운데 중국고대사 연구자로 史部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總目』 史部の 도서 분류 항목은 ① 正史 ② 編年 ③ 紀事本末 ④ 別史 ⑤ 雜史 ⑥ 詔令奏議 ⑦ 傳記 ⑧ 史鈔 ⑨ 載記 ⑩ 時令 ⑪ 地理 ⑫ 職官 ⑬ 政書 ⑭ 目錄 ⑮ 史評 등의 15개 類目으로 분류된다. 중국 고대사를 전공하면서 다양한 원전의 이해를 『總目』 史部에서 시작하는 중국학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필자는 평소에 자연스럽게 史部の 내용을 접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史部の 도서 분류 체계인 편목구성과 기원, 그리고 후대에 끼친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總目』 史部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국내학계의 경우 『四庫全書』 자체에 대한 개괄적 소개⁶⁾ 및 수량적 고찰에 관한 연구⁷⁾가 있는데, 『總目』과 사지목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總目』과의 도서 분류와 관련해 동서양의 지식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있고,⁸⁾ 그리고 문학적 관점에서 사지목록과 『總目』에 수록된 소설을 연구한 성과도 있다.⁹⁾ 이밖에 최근 『四庫全書』라는 번역서가 출간되기도 했다.¹⁰⁾

중국학계의 『總目』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근 『總目』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四庫總目學”¹¹⁾이라는 개념을 출현시켰고,

6) 鄭石元, “四庫全書에 대하여,” 『인간과 경험』 第3輯, 1991.
7) 卞麟錫, “四庫全書의 數量的 考察,” 『史叢』 第30輯, 1993.
8) 이명규, “지식분류에 대한 동서양의 비교 - 베이컨의 분류와 사고전서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11권 제2호(2000. 12), 본서의 저자는 중국의 목록학적인 저술을 간술하고, 四部の 기원과 각 類目を 언급하며 이를 베이컨의 지식분류인 기억(역사), 상상(문학), 이성(철학)과 비교했다.
9) 崔眞娥, “宋代 이후 목록서에서의 소설의 자리 찾기,” 『中國語文學論集』 제15호(2000. 10).
10) 켄드 가이(R. Kent Guy)저 양희웅 역, 『四庫全書』, 생각의나무(2009. 1) 워싱턴대학에서 청대사를 연구하는 저자는 본서의 第5章에서 “해제 작성자들에 대한 검토: 학과와 『總目』제요,”라는 제목으로 학술사상적인 측면에서 『四庫全書』 편찬과정에서 출현한 漢學과 宋學의 史評과 解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1) 본 개념은 陳曉華 교수가 『四庫總目學史研究』(商務印書館, 2008)을 통해서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개념의 도출은 근간에 출간된 司馬朝軍, 『四庫全書總目研究』(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와 張傳峰, 『四庫全書總目學術思想研究』(學林出版社, 2007) 등의 저술과 연구자의 증가로 인한 학술계의 다변화와 다양화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總目」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總目」의 연구 성과와 그 경향은 주로 四部 분류법의 기원, 분류연혁, 敍錄과 小序의 편찬 등 목록학 사상에 집중된 반면, 類目과 子目的 기원과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소홀한 편이다.¹²⁾ 이는 중국고대 목록학 저술에서 官私目錄을 불분하고 모두 일정한 類目を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향을 보면 현 연구경향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總目」 대한 필자의 연구 방법으로 주로 비교와 분석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자 한다. 우선 「總目」 史部の 도서 분류 체계를 類目과 子目으로 분석하고, 둘째로는 사지목록의 연구 대상과 범주를 규정하고, 셋째로는 姚名達, 鄭學檬, 王錦貴 등의 연구성과¹³⁾를 기초로 正史에 속한 사지목록의 類目과 子目を 중심으로 통시대적 범주에서 역대 官修와 私撰의 목록서를 선별하여 이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總目」 史部の 類目형성의 기원과 변화, 그리고 시대적 전승과 신설·폐지 등 변화과정의 검토하면서, 동시에 사지목록의 분류법이 어떻게 「總目」 史部の 類目과 子目으로 귀결되는지 이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總目」 史部가 사학발전의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이를 학술사적 관점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總目」과 사지목록은 계승과 발전이라는 전승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점에 착안 하여 본고의 연구시각과 관련, 사지목록의 목록학적 특징을 많은 자료에서 추려낸 상세한 정보를 항목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한다는 「體系書誌學」¹⁴⁾의 성격과, 「總目」에 이르러 목록학이 청대 학술적 성과인 考據學을 기초로 도서의 연대, 기원,

-
- 12) 陳曉華, “四庫總目學研究述略”, 『西南師範大學出版社』 第4期(2006).
蔣宗福, “新時期中國文獻學研究綜述(1978-2005)”, 『綿陽師範學院學報』 第4期(2006).
陳曉華, “20世紀四庫總目學研究述略”, 『圖書情報工作』 第11期(2002).
- 13)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臺灣商務印書館, 1971).
鄭鶴聲, 『中國史部目錄學』 (民國叢書) 第二編 (上海書店, 1989).
王錦貴, 『中國歷史文獻目錄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 14) 본 개념은 국내학계의 千惠鳳 교수가 제기했고, “形態書誌學”과 대조되는 서지학 분류방법을 말한다. 문헌을 왕조와 주제별로 고금의 각종 문헌을 체계 있게 편성한다는 장서목록(Catalogue)과 서목(Bibliography) 및 색인류(Indexes)의 체계적인 편성이라고 했다(千惠鳳, 『韓國書誌學』, 32-33).

출처, 진위 밝히는 “形態書誌學”¹⁵⁾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2. 史志目錄의 형성과 史部의 출현

2.1 史志目錄의 의미와 범주

목록학과 관련된 저술에서 “사지목록”을 언급하지만 실상 그 의미와 범주는 학자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 첫째, 史志目錄은 正史 문헌중의 『藝文志』와 『經籍志』만을 지칭한다는 주장이다. 徐召勛은 사지목록은 正史의 藝文志와 經籍志, 즉 『漢志』와 『隋志』, 『唐書·經籍志』(이하 『唐志』로 약칭), 『新唐書·藝文志』(이하 『新藝』로 약칭), 『宋史 藝文志』(이하 『宋藝』로 약칭), 『明史 藝文志』(이하 『明藝』로 약칭) 등이 사지목록이다”¹⁶⁾로 정의했다. 그리고 高路明 역시 “사지목록은 역대 사관이 사서를 편찬할 때에 동 시대의 국가장서를 근거로 저술했고, 그 목적은 한 시대의 장서를 기록한다는 의미로 특정 시기의 학술문화의 상황을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지목록은 正史와 함께 후대 계승된 것이다.”¹⁷⁾고 했다.

둘째, 사지목록은 正史, 國史와 政書¹⁸⁾ 중의 『藝文志』와 그리고 후대 사람이 『藝文志』를 補編한 것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來新夏는 사지목록을 언급하면서 “正史 중의 『藝文志』와 『經籍志』, 그리고 특정 시대의 목록서인 『國史·經籍志』 등의 목록학 저술과 政書중의 목록학을 언급한 저술인데, 특히 사지목록을 보완한 ‘補志’ 등을 포괄한다”¹⁹⁾라고 했다. 周少川은 그 범위를 “사지목록은

15) 千惠鳳 교수는 도서의 특징과 변천과정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 조사, 비평, 연구, 종합하여 출간 시기와 우열을 고증하는 것으로, 개개 문헌에 대한 해제(Bibliographical annotation)가 핵심이라고 했다(千惠鳳, 『韓國書誌學』, 55-56).

16) 徐召勛, 『學點目錄學』(安徽教育出版社, 1983), 17.

17) 高路明, 『古籍目錄及其功用』, 王國良, 王秋桂, 『中國圖書文獻學論集』, 明文書局, 1986.

18) 政書란 역대왕조의 문물제도를 수록한 체례를 지칭한다(王錦貴, 『中國歷史文獻目錄學』, 143).

正史目錄, 國史目錄, 專史目錄과 補史目錄의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²⁰⁾고 했다. 그가 언급한 “專史目錄”이란 “政書중의 목록”을 말하는데, 「通志 藝文略」, 「文獻通考·經籍志」 등의 목록서를 지칭한다.

셋째, 사지목록은 중국 고대시기 출현한 사서와 지방지 중의 목록과 관련한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中國大百科全書」(圖書館學情報學檔案學)에서는 “사지목록은 고대 正史와 기타 史書와 地方志 중의 목록이다”²¹⁾고 주장했다. 그 범위는 正史, 國史, 正史중의 目錄뿐만 아니라 王應麟의 「玉海·藝文志」와 지방지에서 언급한 藝文志 등도 포괄한다는 주장이다. 楊燕起, 高國抗 등의 학자는 지방지와 正史의 「藝文志」는 그 성질이 서로 같다고 인식하고서 “사지목록의 범주에는 지방지의 「藝文志」도 반드시 함께 언급해야”²²⁾고 주장했다.

사지목록의 의미와 범주를 정의할 때 2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史志의 史와 관련하여 正史, 國史, 政書 등의 반드시 史書라는 전제를 만족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玉海」는 史書가 아닌 類書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지목록의 범주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 “史志”의 “志”에 대해서는 「藝文志」, 「經籍志」뿐만 아니라 사서 성격을 전제한 國史와 政書의 「藝文略」, 「經籍考」 등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지목록 중에 “目錄”이란 일정한 시대와 특정한 朝代를 포괄하는 群書目錄으로 왕조가 저술한 장서목록이어야 한다. 이점에서 본다면 方志란 원래 특정지역의 연혁지리를 기술한 지리서의 성격이 강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곳에 수록한 장서목록이 朝代와 王朝를 대표할 수 있는지는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方志 「藝文志」는 “내용의 다수는 지방의 長吏와 邑紳이 저술한 詩賦, 序文, 雜文을 수록하고 있다”²³⁾라고 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지목록이란 연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그 범주는 연구자에 따라서 서로

19) 來新夏, 「古典目錄學淺說」(中華書局, 1981), 18-22.

20) 周少川, 「古典目錄學」(中州古籍出版社, 1996), 79.

21) 中國大百科全書總編輯委員會, 「中國大百科全書」(圖書館學情報學檔案學)(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6).

22) 楊燕起, 高國抗, 「中國歷史文獻學」(北京圖書館出版社, 1989), 212.

23) 章學誠著, 葉瑛 校注, 「文史通義校注」外篇四, 「答甄秀才論修志第一書」.

달라 질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그러나 비교적 합리적인 사지목록의 정의와 범주로는 史書 중의 목록으로 『漢志』에서 기원하여, 후대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정한 계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正史目錄, 國史目錄, 政書目錄, 補志目錄의 4가지 범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료의 이용가치는 正史目錄을 중심으로 國史와 政書, 補志目錄을 진위고증을 근거하여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2.2 도서분류법의 변화와 史部의 출현

도서 분류란 학과와 학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辨章學術, 考鏡源流’는 결국 목록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 기능이며 또한 가장 높은 경지로 여겨져 왔다. 이에 대해 汪辟疆은 목록학의 학술적 필요성은 “학술을 辨章하여 그 기원을 분석하는 것에 사지목록이 매우 중요하다”²⁴⁾ 고 했다. 중국의 목록학 전통 가운데 도서 분류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周代에 이미 약간의 관리를 두어 도서를 관리한 문헌기록이 있다.²⁵⁾ 춘추전국시기에 이르러 학술연구와 문화교육은 점차 국가독점의 지위에서 점차 민간과 개인의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孔子는 강학 과정에서 관련 문헌을 정리해 六藝를 편찬했다. 六藝란 詩·書·禮·樂·易·春秋 등을 지칭하는데, 이런 六藝가 후대 도서 분류의 기본 골격을 제공했다. 六藝는 漢代에서 이르러 사지목록 형성에 근간이 되었다.

2.2.1 사지목록과 6분법의 출현 - 『七略』

西漢시기 통치자는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중시하였다. 西漢 惠帝 4년에 “大收篇籍, 廣開獻書之路.”²⁶⁾의 정책을 실행하며 산실된 도서는 수집했다. 국가적 차

24) 汪辟疆, 『目錄學研究』(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 64.

25) 『周官』: “太史掌建邦國之六典 … 小史掌邦國之志 … 內史掌王志八枋之法, 外史掌書五令, 掌四方之志, 掌三皇五帝之書, 掌達書名於四方.”

원의 도서수집은 목록서가 등장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漢武帝에 이르러 관찬목록의 저술을 통해 제자학설의 정리 필요성이 등장하면서²⁷⁾ 이를 통해 황제의 소장장서가 충실해졌고, 漢成帝 시기에 劉向이 서적을 校勘하며 장서를 분류·정리했다. 이를 통해 「別錄」이라는 목록서가 출현했다. 이후 그의 아들 劉歆이 하면서 「七略」을 통해 중국 최초의 六分法의 도서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²⁸⁾ 「七略」에 수록된 도서는 모두 13,219권으로 이를 6가지로 분류, 38종의 小類와 그 아래 306家로 세분했다. 「七略」의 구성은 “① 輯略 ② 六藝略 ③ 諸子略 ④ 詩賦略 ⑤ 兵書略 ⑥ 術數略 ⑦ 方技略”인데, “輯略”이란 劉向이 저술한 提要로서 先秦 학술 사상의 근원과 변화와 당시 도서의 상황을 수록한 것이다.

<표 1> 「七略」의 도서 분류

分類	類目	略
六藝略	●易 ●書 ●詩 ●禮 ●樂 ●春秋 ●論語 ●孝經 ●小學	9
諸子略	●儒 ●道 ●陰陽 ●法 ●名 ●墨 ●縱橫 ●雜 ●農 ●小說	10
兵書略	●兵權謀 ●兵形勢 ●兵陰陽 ●兵技巧	4
數術略	●天文 ●曆譜 ●五行 ●蓍龜 ●雜占 ●形法,	6
方技略	●醫經 ●經方	4
詩賦略	●屈賦 ●陸賦 ●荀賦 ●雜賦 ●歌詩	5

<표 2> 처럼 「七略」의 분류체계를 통해 당시 학술면모와 목록사상의 형성을 대략 알 수 있다. 우선 儒家사상을 중심이 되었다는 것과, 둘째로 秦漢학술의 개괄적인 면모의 볼 수 있고, 또한 비교적 체계적인 도서 분류 원칙이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주목할 점은 「七略」에서 史書는 아직 독립적인 부류로 분류되지 못했고, 그럼에도 「七略」의 후대에 큰 영향을 발휘하여 후대 중국고대 도서 분류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26) 「漢書」 卷30 「藝文志」, 1701.

27) 「漢書」 卷30 「藝文志」: “建藏書之策, 置寫書之官, 下及諸子傳說, 皆禾秘府.”

28) 「漢書」 卷30 「藝文志」: “乃集六藝群書, 種別爲七略.”

2.2.2 7분법과 史部の 출현 - 「七錄」

「七錄」은 「七略」을 계승하여 南朝 梁代의 阮孝緒가 저술한 목록서로서, 현재 산실되고 唐代 道宣의 저술인 『廣弘明集』²⁹⁾에서 그 분류체계의 대강이 전해진다. 특별히 「七錄」은 “紀傳錄部”의 신설을 통해 史書는 기존의 儒典에서 독립시켰고, 史書의 세부적인 類目은 당시 다양한 차례의 사서출판의 진면목을 반영하고 있다.

<표 2> 「七錄」의 도서 분류

	分類	類目	部
內篇	經典錄	•易 •尙書 •詩 •藝 •樂 •春秋 •論語 •孝經 •小學 •讖緯	9
	紀傳錄	•國史 •注力 •舊事 •職官 •儀典 •法制 •僞史 •雜傳 •鬼神 •土地 •譜狀 •簿錄	12
	子兵錄	•儒 •道 •陰陽 •法 •名 •墨 •縱橫 •雜 •農 •小說 •兵	11
	技術錄	•天文 •曆算 •五行 •卜筮 •雜占 •刑法 •醫經 •經方 •雜藝	9
	文集錄	•楚辭 •別集 •總集 •雜文	4
外篇	仙道錄	•經戒 •服餌 •符圖 •房中	4
	佛法錄	•戒律 •禪定 •智慧 •疑似 •論記	5

<표 2>처럼 「七錄」의 紀傳錄은 史書분류의 시초로서 그 類目은 「隋志」로 전승되어 이후 史部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2.3 4분법과 史部の 형성 - 「中經新簿」, 「隋書·經籍志」

魏晉 이후에 사회경제와 학술문화의 발전으로 秦漢시기와 달리 다양한 역사서와 지리서가 출현했다.³⁰⁾ 이런 경향은 목록서에 반영되어 兵書, 術數, 方術의

29) 釋道宣저, 이한정 옮김, 『廣弘明集』 卷3 (동국역경원, 1999), 50-54.

30) 魏晉 이후 출현 역사와 지리서는 陳壽의 「三國志」 및 裴松之의 注釋, 范曄의 「後漢書」, 沈約의 「宋書」, 蕭子顯의 「南齊書」, 魏收의 「魏書」, 袁宏의 「後漢紀」, 常璩의 「華陽國志」, 酈道元的 「水經注」, 楊銜之의 「洛陽伽藍記」, 劉義慶의 「世說新語」 등이 있다.

중요성은 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대신 歷史·地理·佛敎 등의 도서 출판이 증가되면서, 결국 새로운 四分法을 출현시켰다.

四分法은 曹魏시기 鄭默의 「中經」에서 시작했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西晉의 荀勗의 「中經新簿」에서 나타났다.³¹⁾ 본서는 수록한 도서를 甲部·乙部·丙部·丁部の 四部로 분류했다. ① 甲部는 六藝와 小學을, ② 乙部는 諸子, 兵書, 兵家, 術數를, ③ 丙部는 史記, 舊事, 皇覽簿, 雜事를, ④ 丁部는 詩賦, 圖讚, 汲冢書를 각각 포함했다. 「中經新簿」는 분류 방법상 “甲·乙·丙·丁”을 도서 분류 기호로 삼고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부호화한 의의도 있다.

<표 3> 「隋書 經籍志」도서 분류

分類	類目	部
經部	•易 •書 •詩 •樂 •禮 •春秋 •論語 •孝經 •小學 •讖緯	10
史部	•正史 •古史 •舊事 •職官 •儀注 •刑法 •霸史 •雜傳 •地理 •譜系 •雜史 •簿錄 •起居注	13
子部	•儒 •道 •法 •名 •墨 •縱橫 •雜 •農 •小說 •兵家 •天文 •曆數 •五行 •醫方	14
集部	•楚辭 •別集 •總集 •雜集	3
道經部	•經戒 •服餌 •符錄 •房中	4
佛經部	•經 •律 •論	3

東晉의 李充은 「中經新簿」를 기초로 「晉元帝四部書目」을 저술했고,³²⁾ ① 甲: 五經 ② 乙: 史書 ③ 丙: 諸子 ④ 丁: 詩賦로 순서를 바꾸어 사분법을 다시 정했다. 「晉元帝四部書目」의 출현 이후, 史部가 비로소 乙部의 위치를 대신했고, 經·史·子·集部の 순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史部를 子部 앞에 나열한 것은 당시 東晉 시기 史書와 사서편찬을 중시한 보편적인 목록분류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후 四部 분류법의 정형으로 「總目」까지 전승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31) 「隋志·序言」, 906.

32) 「隋志·序言」, 906.

唐代에 이르러 魏徵은 『隋志』를 저술하면서 甲·乙·丙·丁부의 四部를 다시 經·史·子·集部로 분류해 도서를 구분했다. 즉 甲經部, 乙史部, 丙子部, 丁集部로 체계를 바꾸었다. 魏徵은 四부의 도서를 모두 40類로 분류했고, 별도로 불교와 도교 서적은 별도로 15類로 분류했다. 『隋志』가 출현한 이후 역대 官修와 私家목록은 보편적으로 이를 연용했다. 『隋志』는 가깝게는 梁代 阮孝緒의 『七錄』의 분류체계를 전승한 것이지만, 그 기원은 <표 3>을 보면 『七略』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임을 알 수 있다.

2.2.4 12분법과 史部의 발전 - 『通志·藝文略』

四부분류는 宋代에 이르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鄭樵는 『通志·藝文略』을 저술하여 類目的 수량 늘리고, 子目 역시 증설하여 다수를 설치했다. 그리고 禮, 樂, 小學을 經部에서 선별하여 독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天文, 五行, 算術, 醫方, 類書 등을 子部에서 독립시켰다.

그리고 集部를 文類로 개명하고, 전체 도서를 12類의 100家, 422種으로 분류했다. 이로서 12類의 ①經類 ②禮類 ③樂類 ④小學類 ⑤史類 ⑥諸子類 ⑦天文類 ⑧五行類 ⑨藝術類 ⑩醫方類 ⑪類書類 ⑫文類 등을 형성했다. 12개의 大類 아래에 다시 小類에 해당하는 “家”를 두고, 밑에 다시 子目에 해당하는 “種”를 배치했다. 이로서 『藝文略』은 “類 - 家 - 種”이라는 3급의 분류체계를 구비하면서, 중국 역대 목록서 가운데 가장 상세한 도서 분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史類는 類目으로는 ①正史, ②編年, ③霸史, ④雜史, ⑤起居注, ⑥故事, ⑦職官, ⑧刑法, ⑨傳記, ⑩地理, ⑪譜系, ⑫食貨 ⑬目錄으로 구분했는데, 類目과 子目を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藝文略』史類의 경우 類目を 모두 “13家”로 분류하고, 그 아래 자목인 “種”을 설치했다. 12類는 『七略』과 『七錄』, 그리고 『隋志』의 분류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목록체계를 형성하면서 후대 『總目』 출현에 큰 영향을 주었다.

「四庫全書總目」史部の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 연구

<표 4> 「藝文略」史類의 類目

部	類目	子目		
史類	① 正史			
	② 編年			
	③ 霸史			
	④ 雜史			
	⑤ 起居注	① 起居注		
		② 實錄		
		③ 會要		
	⑥ 故事			
	⑦ 職官			
	⑧ 刑法	④ 律		
		⑤ 令		
		⑥ 格		
		⑦ 式		
		⑧ 勅		
		⑨ 總類		
		⑩ 古制		
		⑪ 專條		
		⑫ 貢舉		
		⑬ 斷獄		
		⑭ 法守		
		⑨ 傳記	⑮ 耆舊	
			⑯ 高隱	
			⑰ 孝友	
	⑱ 忠烈			
	⑲ 名士			
	⑳ 交遊			
	㉑ 列傳			
㉒ 家傳				
㉓ 列女				
㉔ 科第				
㉕ 名號				
㉖ 冥異				
㉗ 祥異				

	⑩地理	㉘ 地理	
		㉙ 都城宮苑	
		㉚ 都邑	
		㉛ 圖經	
		㉜ 方物	
		㉝ 川瀆	
		㉞ 名山洞府	
		㉟ 朝聘	
		㊱ 行役	
		㊲ 蠻夷	
		⑪譜系	㉞ 帝系
	㊱ 皇族		
	㊲ 總譜		
	㊳ 韻補		
	㊴ 郡譜		
	㊵ 家譜		
	⑫食貨		㊶ 貨寶
			㊷ 器用
		㊸ 參養	
		㊹ 種藝	
		㊺ 茶	
		㊻ 酒	
	⑬目錄	㊼ 總目	
		㊽ 家藏總目	
		㊾ 文章目	
		㊿ 經史目	

『藝文略』에는 『隋志』와 달리 小序와 解題를 생략했다. “家” 아래에 “種” · “部” · “卷”을 두었고, 다시 “種”아래에 해당 도서의 권수를 기록했다.³³⁾

33) 『通志·藝文略』은 10,912部 110,972卷 748篇 12章 37圖의 도서를 12분류법으로 수록하고 있다. 본서는 도서를 類目を 1급으로, 家目を 2급으로, 種目を 3급으로 세분화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史類의 食貨種을 “凡食貨六種 百二十部四百五卷” 등으로 수록했다. 『通志』 중의 『校讎志』와 『藝文略』, 『圖譜略』, 『金石略』은 鄭樵의 目錄사상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편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연구 성과를 보면 주로 『校讎略』에 집중해 目錄사상을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실은 鄭樵의 도서 분류와 目錄학 사상은 『藝文略』을 소홀이

「藝文略」을 저술하며 참고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玉海」 등을 底本으로 전대의 사지목록인 「漢書 藝文志」, 「隋志」, 「新志」, 「崇文總目」 등을 참고했다.³⁴⁾ 「藝文略」은 모두 8卷으로 각 서목마다 書名, 卷數, 저술자를 표기했고, 또한 원칙적으로 도서의 존망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았고, 간혹 “今亡”³⁵⁾이나 “存有”³⁶⁾로 표기하기도 했다.

<표 5>처럼 「藝文略」의 類目과 子目的 구성과 배열을 다소 복잡할 정도로 상세하게 분류목록을 세부화했다. <표 5>의 분류항목인 部 - 類目 - 子目은 「藝文略」에서는 “類 - 家 - 種”로 분류했다. 「藝文略」에 수록된 도서분류 항목의 수량과약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³⁷⁾ 이를 학자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즉 來新夏의 「古典目錄學淺說」은 “12類, 100家, 371種”라 분류했고, 반면에 羅孟禎의 「古典文獻學」에서는 “12類, 88小類, 442目”으로 나누었고, 倪士毅는 「中國古代目錄學史」에서 12類, 100家, 430類으로 그 수량을 파악했다.³⁸⁾

鄭樵는 「藝文略」에서 도서분류의 체계성을 역설하면서 “類例旣分, 學術自明”³⁹⁾이라는 자신의 목록학 관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도서 분류의 체계가 분명하면 類目과 子目的 체제가 분명해지고, 이후에 비로소 그 학술의 원류를 탐구하고, 그 진승관계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할 수 없는 점도 많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필경 「藝文略」은 그의 목록학 사상은 실천을 통해 구체화된 편목의 설치로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4) 倪士毅, 「中國古代目錄學史」(杭州大學出版社, 1998), 157.

35) 「通志·藝文略」: “「連山」十卷, 夏后氏, 「易」至唐始出, 今亡.”

36) 「通志·藝文略」: “「後漢書」一百卷, 張太素撰, 惟存有「天文志」二卷.”

37) 風文龍은 이런 학자간의 분석결과와 차이는 「藝文略」의 3급 분류체계 자체가 갖는 불완전성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風文龍, “鄭樵通志藝文略及其貢獻”, 「信陽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1卷-2期(2001).

38) 倪士毅, 「中國古代目錄學史」, 157.

39) 鄭樵, 「通志」卷71 「校讐略」.

3. 「正史」史部の 類目과 著錄형태 - 나열적 서지의 특성

正史 中の 「藝文志」와 「經籍志」를 포함하는 사지목록으로 ① 「漢志」 ② 「隋志」 ③ 「舊志」 ④ 「新志」 ⑤ 宋志」 ⑥ 「明志」 ⑦ 「清史稿·藝文志」 등이 있고, 후대 官撰과 私撰 목록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1 「正史」史部の 類目の 비교

사지목록은 정사의 「志」의 체례로 기술되었고, 수록된 목록은 국가장서나 저작으로 중국고대 목록학 발달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동시에 사지목록의 類目の 형성과 발전은 후대 「總目」 史部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간단한 도표를 통해서 「志」에 수록된 史部 편목을 나열하고 이를 전대의 「七錄」·「七志」·「隋志」·「藝文志」와 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正史」史部の 類目비교

	「隋志」	「舊經」	「新藝」	「宋藝」	「明藝」
①	正史	正史	正史	正史	正史
②	古史	編年	編年	編年	×
③	雜史	雜史	雜史	別史	雜史
④	霸史	僞史	僞史	霸史	×
⑤	起居注	起居注	起居注	×	×
⑥	舊事	舊事	故事	故事	政書
⑦	職官	職官	職官	職官	職官
⑧	儀注	儀注	儀注	儀注	儀注
⑨	刑法	刑法	刑法	刑法	刑法
⑩	雜傳	雜傳	雜傳記	傳記	傳記
⑪	地理	地理	地理	地理	地理
⑫	譜系	譜牒	譜牒	譜牒	譜牒
⑬	簿錄	目錄	目錄	目錄	×

① 正史라는 類目은 남조시기 「七錄」 傳記類의 國史部에서 시작했다. 「隋志」에서는 이를 正史로 개명하면서 기전체 사서를 수록했다. 「明藝」에 이르러 기전체와 편년체를 통합하여 수록하기도 했다. ② 編年은 「隋志」에서는 “古史”라 하면서 「紀年」 등의 편년체 사서를 수록했고, 「明志」에서는 이를 정사류에 포함시켰다. 別史는 정사의 지류에 해당하는데⁴⁰⁾ 「宋藝」에서 설치되었다. ③ 雜史는 「隋志」에서 시작되어 진위가 불명한 다양한 황제와 군자에 대한 사실을 광범위하게 수록한 체례를 지칭했다.⁴¹⁾ ④ 霸史는 「七錄」에서 僞史로 시작했고 「隋志」에서 霸史로 개명했다가 「文獻通考 經籍考」에서는 “僞史霸史”로 통합하기도 했다. ⑤ 起居注는 「七錄」의 「注歷部」에서 「隋志」의 起居注로 개명했다. ⑥ 舊事는 「七錄」의 「舊事部」에서 시작해 「隋志」는 이를 “故事”로 개칭했고, 「總目」에서 “政書”로 확정했다. ⑦ 職官은 「七錄」의 「職官部」에서해 후대에 이를 연용했다. ⑧ 儀注는 「칠록」에서 儀注로 시작해서 후대에 연용했다. ⑨ 刑法은 「七錄」의 “法制部”에서 시작해 「隋志」에서 “刑法”으로 정착해 후대에 연용되었다. ⑩ 雜傳은 「七錄」에서 시작하여 「隋志」에서 “傳記”로 변했다. ⑪ 地理는 「七錄」에서 “土地部”에서 기원해서 「隋志」의 “地理”로 개명하면서 다양한 子目이 설치되었다. ⑫ 譜系는 「七錄」의 譜狀部에서 시작해 「隋志」에서 “譜系”로 바뀌어 후대에 譜牒으로 전승되었다. ⑬ 目錄은 「七略」의 “簿錄部”에서 시작해 「隋志」가 연용했고, 「舊經」에 이를 “目錄”으로 바꾸었다. [도표 5]에서 나타나듯이 「隋志」에 이르러 도서분류의 근간이 되는 類目の 전형이 점차 정착했고, 후대 정사사부의 類目이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런 전통의 청대의 「總目」 史部の 類目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3.2 「正史」史部 저록형식의 비교

「漢志」, 「隋志」, 「舊經」는 모두 書名을 표시했고, 그 저록형식은 큰 글자로

40) 「總目」, 「史部·別史序錄」: “優大宗之有別子云爾.”

41) 「隋志」: “體制不經, 又有委港之說, 迂怪妄誕, 眞虛莫測. 然其大抵皆帝王之事, 通人君子, 必博采廣覽, 以酌其要. 故備而存之, 謂之雜史.”

서명과 篇卷을 기록한 이후에 작은 글자로 注文을 수록했다. 이런 체례는 “체계서지학”의 장서목록(Catalogue)과 서목(Bibliography) 나열이란 측면에서 보면 서구의 열거서지학(Enumerative bibliography) 저록형식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漢志』는 저록의 분량이 적었고 注文에도 일정한 원칙이 없었다. 『漢志』의 저록은 “右 + 서명 + 家 + 篇 + 注文”과 “凡 + 類名 + 家 + 篇 + 注文”의 형식을 유지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史籀十五篇周宣王太史作大篆十五篇，建武時亡六編”⁴²⁾

“凡小學十家，四十五篇。入揚雄，杜林二家二篇”⁴³⁾

“右道三十七家九百九十三篇”⁴⁴⁾

이상과 같이 『漢志』저록의 기본적인 형식을 귀납하면 “書名 + 篇卷 + 注文”의 형식을 유지했다.

『隋志』는 『漢志』의 형식을 계승했고, 수록한 서목이 풍부해진 반면 주문도 체계화되면서 해당 도서의 存亡도 언급했다. 그 형식은 “저자 + 저작방식 + 보존 산실”의 형식으로 큰 글자로 서명과 篇卷을, 후에 작은 글자로 注文을 기술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齊職儀五十卷齊長水校尉王珪之撰。梁有王珪之齊儀四十九卷，亡。”⁴⁵⁾

간혹 서명의 큰 글자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梁官品格一卷”⁴⁶⁾ 등이 다. 그리고 특정 類目の 서목기술을 마친 후에 도서의 존망을 언급했다.

“右五十九卷，二天二百九卷。通計亡書，合六十九部，三千九十四卷”⁴⁷⁾

42) 『漢書 藝文志』 卷30, 1719.

43) 『漢書 藝文志』 卷30, 1720.

44) 『漢書 藝文志』 卷30, 1730.

45) 『隋書 經籍志』 卷33, 968.

46) 『隋書 經籍志』 卷33, 968.

47) 『隋書 經籍志』 卷33, 971.

이상과 같이 “右 + 部 + 卷 + 通計亡書合 + 部 + 卷”의 형식으로 도서 存亡의 수량을 파악했다.

“凡史之所記, 八百一十七部, 一萬三千二百六十四卷. 通計亡書, 合八百七十四部, 一萬六千五百五十八卷.”

이상은 도서존망의 집계를 끝으로 史部를 종결하는 형식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⁴⁸⁾ 張舜徽는 “『漢志』와 『隋志』의 ‘辨章學術, 考鏡源流’을 근거한 것인데, 이를 단지 서목만을 기록으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⁴⁹⁾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舊經』는 형식을 약간 변형하며 『隋志』의 수록 형식을 발전시켰다. 즉 部아래 家로 표시한 유목을 두고, 그 아래 수록한 서목을 部와 卷을 표시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乙部史錄, 十三家, 八百四十四部, 一萬七千九百四十六卷.⁵⁰⁾
正史類一 編年類二 僞史類三
雜史類四 起居注類五 故事類六
職官類七 雜傳類八 儀注類八
刑法類十 目錄類十日 譜牒類十二
地理類十三

이상과 같이 『舊經』은 “部 + 大類名 + 家 + 部 + 卷 + 小類名一 + 小類名二...” 등으로 도서저록 형식상 일정한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각 小類가 끝나면 그 형식은

“右八十一部, 史記六家, 前漢二十五家 …… 凡四千四百四十三卷”⁵¹⁾

『舊經』의 저록형식은 “右 + 小名類 + 部 + 家 + … 凡 + 卷”으로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新藝』, 『宋藝』, 『明藝』의 목록기술은 전대를 계승해 서목을 표제로

48) 經部와 史部와는 달리 『隋志』의 子部는 서목의 존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49) 張舜徽, 『史家三書評議』(中華書局, 1983), 38.

50) 『舊唐書·經籍志』卷46, 1987.

51) 『舊唐書·經籍志』卷46, 1987.

삼았지만, 나머지는 이전과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예를 들어 『新藝』는 『舊經』의 체례를 계승하면서 큰 글자로 서명, 저작방식, 서명, 권수를 기입하고 그 뒤에 작은 글자로 주문을 기록했다.

乙部史錄, 其類十三: 一曰正史類, 二曰編年類, 三曰僞史類 … 十三曰地理類. 凡著錄五百七十一家, 八百五十七部, 一万六千八百七十四卷; 不著錄三百五十八家, 一万二千三百二十七卷.⁵²⁾

『舊經』은 이와 같이 “甲/乙/丙/丁部 + 大類名 + 其類 + 一曰 + 二曰…… 凡著錄 + 家 + 部 + 卷不著錄 + 家 + 卷”의 형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각 小類를 형식은 아래와 같다.

“凡實錄二十八部三百四十五卷劉知幾二下不著錄四百五十七卷”

이상처럼 “右 + (小類名)家 + 部 + 卷 + 注文”이며, 간혹 “右”를 “凡”으로 표기했다. 그리고 도서를 수록하고 다시 家와 部, 卷를 언급했다

“右正史類七十家九十部四川八十五卷失姓名二家王元感二下不著錄二十三家一千七魄九十卷總七十家六十九部”

『舊經』서목의 기술은 “저작 + 저작방식 + 서명 + 편권 + 주문”의 형식을 유지했다. 『宋藝』와 『明藝』의 형식은 전체적으로 『新藝』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고 봐도 무난한데, 각 小類를 기술한 후에 다시 소류의 家, 部, 卷을 기술했다. 『宋藝』의 史部는 작은 글씨와 주문으로 不著錄의 家와 卷을 기술했다. 이상과 같이 『正史』史部の 저술형식은 『隋志』에서 시작되어 장서목록과 서목의 형태를 갖추면서, 후대로 계승되면서 다소의 변화가 있었지만, 『隋志』의 기본 형식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52) 『新唐書·藝文志』卷58, 1453.

4. 「總目」 史部の 類目の 구성

「總目」은 「四庫全書」의 편찬 후가 아닌, 편찬을 위한 사전 과정에서 저술되었다.⁵³⁾ 乾隆帝가 1741년에 천하 도서수집의 詔書를 내린 이후, 1772년에 편찬소인 四庫全書館이 개설되었다. 이후 편수와 기록에 참가한 문신·학자·기록관은 대략 4,000여 명에 달했다. 1781년에 이르러 「四庫全書」의 첫 판본인 文淵閣本 완성되었고, 분량이 방대하여 관각이 아닌 필사방식을 통해 7부를 완성하고, 이를 남북 각 지역에 분산해 보관시켰다.⁵⁴⁾

4.1 「總目」 史部の 類目과 子目

「總目」은 「四庫全書總目提要」 혹은 「四庫提要」라고 부르며 모두 200권으로 편찬되었다.⁵⁵⁾ 「總目」의 저술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四庫全書」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수록된 도서의 기원과 장단점과 진위의 판단, 그리고 문자 오류의 교정, 편목의 구성 분석, 그리고 체례에 관한 내용을 등을 소개하기 위한 일종의 「四庫全書」의 설명서에 해당한다.

국가적 편찬사업으로 진행된 「四庫全書」를 소개하는 「總目」의 편목을 보면

-
- 53) 「四庫全書」는 1772년(乾隆 37年)에서 1788년(乾隆 53年)까지 淸의 乾隆帝의 명에 의해 편찬된 중국 최대의 총서로서, 그 분량은 3,503부 79,327권에 달한다. “四庫”란 “經, 史, 子, 集部”으로 經部 66종, 史部 41종, 子部 103종, 集部 175종으로 모두 4946권으로 구성된다. “全書”란 각 部의 도서를 모두 빠짐없이 모두 수록했다는 의미를 말한다.
- 54) 7개 소장본을 간단히 언급하면 ①北京 紫禁城의 文淵閣, ②北京 圓明園의 文苑閣, ③熱河 피서산장의 文津閣, ④瀋陽의 文溯閣, ⑤江蘇鎮江의 文宗閣, ⑥浙江杭州의 文蘭閣, ⑦江蘇揚州의 文匯閣 등이 있다. 그 중에 문화각과 문종각은 1853년 화재로 전소되었고, 문원각은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침입했을 때 전소되었다. 문란각본은 현재 항주 저장성 도서관에, 文淵閣本은 대만에, 文溯閣은 蘭州의 甘肅省 도서관에 보관중이다. 文津閣本은 북경 국가도서관에 보관중인데 7질의 책 가운데 가장 완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55) 본서는 總纂官인 紀昀(1724-1805)이 주관하여 1773년(乾隆38年)에 시작하여 1793년(乾隆58年)에 완성했다. 「總目」에는 10,253종 172,860권과 存目類 6,793종 93,551권을 수록하고, 이를 經, 史, 子, 集部로 분류하고 44개의 類目으로 나누었다.

단편적인 사용설명서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總目』과 『四庫全書』과 표리관계 있는 것으로 『四庫全書』의 중요성과 가치는 바로 『總目』을 통해 구현했다. 『四庫全書』의 편찬사업이 중국역사상 전대미문의 편찬사업이라고 한다면, 『總目』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서분류의 기준과 원칙을 제공했던, 역대 중국 목록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總目』은 『四庫全書』편찬사업과 더불어 동시에 시작되었다. 『總目』 史部の 도서분류 체계를 제2급 분류인 類目과 제3급에 해당하는 子目, 그리고 저록한 도서 수량과 판본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總目』 史部の 類目과 子目 일람표

部	類目	子目	部	卷	底本	
史部	① 正史		38	3739 ⁵⁶⁾	文蘭閣	
	② 編年		38	2066	文淵閣	
	③ 紀事末末		22	1247	文蘭閣	
	④ 別史		20	1614	"	
	⑤ 雜史		22	273	文淵閣	
	⑥ 詔令奏議	① 詔令		10	822	
		② 奏議		29	726	文蘭閣
	⑦ 傳記	③ 聖賢		2	7	文淵閣
		④ 名人		13	113	"
		⑤ 總錄		36	808	"
		⑥ 雜錄		9	21	"
		⑦ 別錄 ⁵⁷⁾				"
	⑧ 史鈔		3	48	"	
	⑨					
	⑩ 載記類		21	380	"	
	⑪ 時令類		2	29	"	
	⑫ 地理類	⑧ 宮殿疏		2	11	"
		⑨ 總志		7	941	"
⑩ 都會郡縣			48	2752	"	
⑪ 河渠			23	507	"	
⑫ 邊防			2	24	"	
⑬ 山川			7	113	"	

		⑭ 古迹	14	125	"
		⑮ 雜記	28	213	"
		⑯ 游記	3	15	"
		⑰ 外記	17	98	"
	⑬ 職官類	⑱ 官制	15	365	"
		⑲ 官箴	6	17	"
	⑭ 政書類	⑳ 通制	19	2298	"
		㉑ 典禮	24	1051	"
		㉒ 邦計	6	53	"
		㉓ 軍政	4	271	"
		㉔ 法令	2	77	"
		㉕ 考工	2	35	"
	⑮ 目錄	㉖ 經籍	11	421	"
		㉗ 金石	36	276	"

「總目」 史部の 구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類目은 正史類에서 目錄類까지 모두 15개로 분류되었고, 다시 類目에 대한 子目은 ① 詔令 ② 奏議 ③ 聖賢 ④ 名人 ⑤ 總錄 ⑥ 雜錄 ⑦ 別錄 ⑧ 宮殿疏 ⑨ 總志 ⑩ 都會郡縣 ⑪ 河渠 ⑫ 邊防 ⑬ 山川 ⑭ 古迹 ⑮ 雜記 ⑯ 游記 ⑰ 外記 ⑱ 官制 ⑲ 官箴 ⑳ 通制 ㉑ 典禮 ㉒ 邦計 ㉓ 軍政 ㉔ 法令 ㉕ 考工 ㉖ 經籍 ㉗ 金石 등 모두 27개로 구성되었다. 子目은 類目에 따라서 설치된 수량이 傳記類는 5개, 地理類는 10개, 政書類는 6개로 각기 달랐다.⁵⁸⁾

「總目」 史部の 分類체계를 구성하는 15類目과 28子目の 各 門目은 대다수가 역대 官修와 私撰 목록 저술에서 언급되며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여 인정된 것인데, 주로 사지목록에서 기원한 類目과 子目이 가장 많았다. 「總目」이 역대 목록학의 집대성이라고 언급된 이유가 바로 사지목록가운데 대다수 史部の 分類체계를 계승한 성격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다.

56) 文淵閣本은 3,681卷, 浙, 粵本은 3,739卷이라 했다.

57) 別錄은 유목에는 없지만 存目에 類目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類目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58) 「總目」 史部の 수록된 자목의 분량은 正史類(3,739권)와 都會郡縣(2,752권), 그리고 通制類(2,289권)의 순서로 각 유목별로 균형을 갖고 분산되어 설치했다.

4.2 「總目」史部와 「隋志」類目の 비교

「總目」은 다음과 같은 목록분류의 원칙을 두었다. 「總目」, 「凡例」에서 “(「隋志」 아래)四庫書目 이후에 類目は 대동소이해 상호 인용되면서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갖게 되었으니 지금은 그 장점만을 선별해 사용했다”⁵⁹⁾고 했다. 「隋志」와 「總目」, 史部 유목의 전승관계를 중심으로 類目を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7>을 통해 「總目」史部와 「隋志」의 類目を 상호 비교·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승관계를 도출할 수가 있다.

<표 7> 「隋志」와 「總目」史部 類目の 비교

部	「隋志」	「總目」	
	類目	類目	子目
史部	1 正史	① 正史類	
	2 古史	② 編年類	
	3 起居注		
	4 職官	③ 職官類	① 官制 ② 官箴
		④ 紀事末末類	
	5 舊事	⑤ 政書類	③ 通制 ④ 典禮 ⑤ 邦計
	5 儀注		⑥ 軍政
	6 刑法		⑦ 法令
			⑧ 考工
	7 霸史	⑥ 載記類	
	8 雜傳	⑦ 傳記類	⑨ 聖賢 ⑩ 名人 ⑪ 總錄 ⑫ 雜錄 ⑬ 別錄

59) 「總目」附載乾隆38年2月11日上諭：“從來四庫書目，…實古今不易之法…悉心酌定條例。”

「四庫全書總目」 史部の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 연구

		⑧ 詔令奏議類	⑭ 詔令 ⑮ 奏議
		⑨ 時令類	
	⑨ 地理	⑩ 地理類	⑯ 宮殿疏 ⑰ 總志 ⑱ 都會郡縣 ⑲ 河渠 ⑳ 邊防 ㉑ 山川 ㉒ 古迹 ㉓ 雜記 ㉔ 游記 ㉕ 外記
	⑩ 譜系		
	⑪ 簿錄	⑪ 目錄	㉖ 經籍 ㉗ 金石
		⑫ 別史類	
	⑫ 雜史	⑬ 雜史類	
		⑭ 史評類	
		⑮ 史鈔類	

첫째, 『隋志』의 正史, 古史, 雜史, 雜傳, 霸史, 地理, 職官, 簿錄 등을 「總目」이 계승했다. 중에 『隋志』의 古史 → 編年, 雜傳 → 傳記, 霸史 → 載記, 簿錄 → 目錄으로 변했다. 둘째, 반면에 『隋志』 舊事, 儀注, 刑法, 起居注, 譜系 등의 類目を 「總目」은 폐지했다. 셋째, 편입된 類目으로 起居注 → 編年類, 舊事와 儀注, 刑法 → 政書類로 편입되었다. 마지막으로 類目이 증설된 것으로 別史, 史鈔, 時令, 史評, 紀事本末, 詔令奏議 등이 있다.

이외에 증가된 다수의 3급류목인 子目이 있다. 「總目」 史部는 전대의 직관 類目を 그대로 사용했지만, 그 자목은 官制 官箴으로 분류했다고, 政書類는 通制, 典禮, 邦計, 軍政, 法令, 考工의 6가지 자목을 설치했다. 地理類의 자목으로는 宮殿疏, 總志, 都會郡縣, 河渠, 邊防, 山川, 古迹, 雜記, 游記, 外記로 편재했다. 詔令奏議는 전대와 비교하면 비록 하나로 통합을 했지만 그 자목은 詔令과 奏議

로 양분되었고, 目錄類 역시 經籍과 金石으로 분류했다. 『總目』 史部의 유목은 이런 변화를 수용하면서 현재 사부의 유목과 자목의 편재방식으로 완성되었다.

4.3 「總目」 史部와 諸목록서 史部類目の 비교

사지목록 범주에 근거해서 史部類目の 기원과 그 변화를 역대 官藏과 家藏 목록을 근거해 분석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⁶⁰⁾

<표 8> 「總目」 史部の 類目の 기원과 諸목록서의 史部類目 대조표

	類目	七錄	隋志	舊志	新志	崇文	中興	群齋	遂初	直齋	宋志	國志	千堂	明志	總目	
①	正史	國史	○	○	○	○	○	○	○	○	○	○	○	○	○	正史
②	編年	古史	注歷	○	○	○	○	○	○	○	○	○	○	○	×	編年
③	紀事本末	×	×	×	×	×	×	×	×	×	×	×	×	×	×	紀事本末
④	別史	×	×	×	×	×	○	×	×	○	○	×	○	×	×	別史
⑤	雜史	×	○	○	○	○	×	○	○	○	×	○	×	○	○	雜史
⑥	奏章	×	×	×	×	×	×	×	儀注	奏議	×	×	×	×	×	詔令
⑦	詔令	×	×	×	×	×	×	×	×	詔令	×	×	×	×	×	奏議
⑧	傳記	鬼神	雜傳	雜傳	雜傳記	○	雜傳	○	雜傳	○	○	○	○	○	○	傳記
⑨	起居注	×	○	○	○	實錄	○	○	實錄	○	×	○	×	×	×	史鈔
⑩	僞史	×	霸史	○	○	○	霸史	○	○	○	霸史	○	○	○	×	載記
⑪	時令	×	時令	×	×	歲時	○	×	×	○	×	○	○	○	×	時令
⑫	地理	土地	○	○	○	○	○	○	○	○	○	○	○	○	○	地理
⑬	職官	○	○	○	○	○	○	○	○	○	○	○	○	○	○	職官
⑭	政書	儀典	×	儀注	○	○	○	○	○	法令	儀注	○	○	○	○	政書
⑮	目錄	簿錄	×	○	○	○	○	○	○	○	○	簿錄	○	○	○	目錄
⑯	譜牒	×	×	○	○	氏族	○	○	姓氏	○	○	譜系	○	○	○	×
⑰	史評	×	×	×	×	×	○	○	史學	×	史鈔	×	史學	×	×	史評

60) <표 8>의 「崇文」은 「崇文總目」을, 「中興」은 「中興四朝國史藝文志」을, 「群齋」는 「群齋讀書志」을, 「遂初」는 「遂初堂書目」을, 「直齋」는 「直齋書錄解題」을, 「國志」은 「國史經籍志」을, 「千堂」, 「千頃堂書目」을 각각 지칭한다(○는 원편 類目の 지속적인 설치, ×는 설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① “正史”라는 類目은 「隋志」부터 시작되었는데, 「隋志」는 「七錄」의 “國史”를 “正史”로 바꾼 이후 지속적으로 연용했고, 「總目」 史部는 이를 사용했다. ② 編年에 대해서 姚名達은 “編年”은 「新志」에서 처음 칭했고, 그 전에는 ‘注歷’ 혹은 ‘古史’라 칭했다”⁶¹⁾고 했고, 반면에 鄭鶴聲은 “「隋志」의 正史와 故事는 紀傳과 編年體를 기록했다.”⁶²⁾고 했다. 「七錄」의 “注歷”과 「隋志」의 “古史”는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 목록학계에 논쟁이 되고 있다. ⁶³⁾ 七錄」과 「隋志」에서는 “注歷”이나 “古史”가 설치되었는데, 「七錄」이 오래전에 산실한 이유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編年類”는 「崇文總目」을 거쳐 「明志」에 이르러 “正史”편목 아래에 설치했다가, 「總目」에 이르러 독립시켜 “編年類”로 독립시켰다. 이상처럼 ‘編年’이 「新志」에서 처음 나타났다는 姚名達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일찍이 「新志」이전에 「舊志」에서 이미 “古史”를 “編年”으로 바꾸어 사용했다.

③ “記事本末類”는 송대 袁樞의 「通鑑記事本末」이 출현한 이후에 이런 체례의 사서가 「宋史記事本末」, 「元史記事本末」 등이 연속해 출현하자 독립된 유목을 형성했음을 지적했다.⁶⁴⁾ 그리하여 記事本末類를 증설했는데 이는 학술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總目」 史部에는 史體의 출현에 따라서 새롭게 類目이 증보되기도 했다. ④ 別史는 「直齋書錄解題」에서 처음 설치되었다가, 「宋志」를 거쳐서 「總目」 史部に 사용되었다. ⑤ “雜史”는 「隋志」에서 시작, 「宋志」에서 폐지되었고, 「總目」은 다시 “雜史類”를 설치했다.

⑥⑦ “詔令奏議類”는 詔令과 奏議는 원래 2개의 類目이었다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總目」 史部 「詔令奏議類 敍」에서 類目の 기원과 변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황제의 記言과 記動은 두 명의 관리가 나누어 기술했다. 起居注는 右史이고, 左史는 風聞을 기록했다. 황제의 말을 공포한 것이 詔令인데, 「唐志」의

61)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100.

62) 鄭鶴聲의 「中國史部目錄學」, 18.

63) 姚名達은 「隋志」는 古史類가 「七錄」의 注歷部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했고, 鄭鶴聲은 「隋志」 古史類와 「七錄」國史部에서 기원했다고 했다.

64) 「總目」 卷49 「史部 記事本末」 敍: “因者既衆...別立一家.”

史部가 처음으로 설치했다. 黃虞稷의 『千頃堂書目』은 制誥를 集部로 옮겨서 別集에 두었다.... 『文獻通考』는 처음에는 奏議라는 독립된 類目을 두었다가 集部로 옮겼다.”⁶⁵⁾

姚名達은 “원래 ‘章奏’는 『尤目』에서 시작했고, 『陳錄』에서 ‘奏議’라 바꾸었고 集部에 두었는데, 『史庫』에서 이를 통합하여 史部에 편재했다.... ‘詔令’은 『陳錄』에서 시작되었다”⁶⁶⁾고 했다. 王錦貴은 “『新志』에 처음 詔令을 子目으로 두었다가 후에 起居注에 배치했고, 『총목』에는 詔令奏議를 史部類目에 설치했다”⁶⁷⁾고 했다. 하지만 『新志』에 “詔令”은 子目이지 類目은 아니었고, 南宋 陳振孫이 저술한 『直齋書錄解題』에서 비로소 起居注로부터 詔令이 독립하여 類目을 구성했다. 奏議와 章奏의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실은 동일한 내용이다. 奏議類目은 鄭樵의 『通志 藝文志』의 文類에 속했다. 章奏의 類目은 『遂初堂書目』의 集部에 설치되었다. 이후에 『直齋書錄解題』와 『文獻通考 經籍考』 등 역시 集部에 章奏類를 설치했다. 『萬卷堂書目』에서 이르러 史部에 奏議類를 두었다. 清代 『四庫全書』 편찬이전에 『世善堂書目』에서 이미 史部에 詔令과 奏議類를 설치했다. 『總目』에 비로소 양자를 통합하여 史部에 편재했다. 奏章과 詔令이란 별개의 유목에서 시작했다. “奏章類”는 『遂初堂書目』에서 처음 출현한 이래 『直齋書錄解題』은 이를 “奏議”라고 바꾸고, “詔令”은 『直齋書錄解題』에서 기원했지만 “集部”에 편재되었다. 『總目』은 두 개의 類目을 “詔令奏議類”로 합쳐서 史部에 편재했다.

⑧ “傳記”는 그 기원이 다소 복잡하다. 姚名達은 “傳記”는 『新唐志』 이전에는 雜傳이라 했고, 『隋志』가 『七略』의 ‘鬼神’만을 수록했는데, 『史庫』가 聖賢, 名人, 總錄, 雜錄, 別錄의 5가지로 분류했다”⁶⁸⁾고 했다. 鄭鶴聲은 “『七錄』에서 『舊志』와 『新志』까지 雜傳이라했고, 『宋志』부터 傳記라고 칭했다.”⁶⁹⁾고 했다. 하지만

65) 『總目』, 『史部·詔令奏議類敘』, 763.

66)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102.

67) 王錦貴, 『中國歷史文獻目錄學』, 266.

68)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101-102.

69) 鄭鶴聲, 『中國史部目錄學』, 37.

이상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즉 「七錄」이 처음 雜傳部와 鬼神部가 있었고, 「隋志」가 이를 통합하여 雜傳類라고 했던 것이다. 이후에 傳記는 「群書四部錄」과 「舊志」, 「遂初堂書目」은 이를 계승했고, 「新志」는 “雜傳記”로 개명했다. “傳記”라는 類目은 「崇文總目」에서 시작된 이래 관사서목에 모두 사용되었다가 總目」이 이를 연용한 것이다.

⑨ 史鈔 기원에 대해서 「總目」 史部の 「史鈔類序」에서 “帝魁이후 「書」는 3240편인데, 공자가 취사선택하여 백편으로 편찬했다. 이것이 사초의 기원이다. 「宋志」에서부터 독립적인 類目を 설치했다.”고 했다. 이런 영향으로 姚名達과 王錦貴의 저술에서는 모두 史鈔가 「宋志」에서 기원했다고 했다.⁷⁰⁾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전후를 사실을 고려하면 정확하지 않다. 현존하는 고대 목록 중에 「宋志」 외에 일찍이 사초서목이 설치된 것은 馬端臨의 「文獻通考」에서 시작되었다. 「宋志」는 북송의 「國史經籍志」와 남송의 「中興四朝國史藝文志」를 근거로 편찬한 것인데, 그 연대는 「文獻通考」보다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다.⁷¹⁾ 다시 말해 북송 이전에 史鈔類目은 이미 출현했었다. 馬端臨은 「文獻通考」권200 「經籍考」27에서 유지기의 「史通」을 언급하면서 晁公武의 「群齋讀書志」을 인용하면서 書錄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晁氏가 이르길전대의 史部에는 史鈔類가 있었으며 集部에는 文史類가 있었다. 현재 史鈔는 유행하지 않지만 언급하는 자는 많았다. 그래서 文史類 안에서 사학을 논평한 것을 史評으로 했고, 이를 史部에 편제하면서 史鈔가 폐지되었다.”⁷²⁾

이처럼 송대 이전에 사목 분류에는 史鈔類가 있었지만 출현시기가 언제이고 누구에 의해서인지, 어느 목록서에 출현했는지는 현재 증명할 수는 없다.

70)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102. 王錦貴, 「中國歷史文獻目錄學」, 271.

北京大學圖書館係, 武漢大學圖書館學係合編, 「圖書館古籍編目」(中華書局, 1985).

71) 倪士毅, 「中國古代目錄學史」, 78.

72) 馬端臨, 「文獻通考」卷200 「經籍考」: “晁氏曰: …前世史部中有史鈔類, 而集部中有文史類. 今世鈔節之學不行而論說者爲多. 教自文史類內, 摘出論史者爲史評, 附史部, 而廢史鈔云.”

⑩ “僞史”는 『隋志』에서 “霸史”라 했고, 『群齋讀書志』에서는 “僞書,” 『宋志』에서는 “霸史”라 했고, 『總目』史部に 이르러 “『東觀漢紀』와 『晉書』에 附敍한 十六國史와 같은 종류를 ‘載記’라고 명명했다”⁷³⁾

⑪ “歲時”에 대해서는 『直齋書錄解題』, 『時令類敍』에서 “전대의 時令 도서는 모두 子部の 農家類에 편재했다. 지금의 목록서는 國家典禮에서 향촌풍속까지를 모두 기재해서 농사일만을 수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中興館閣書目』에서는 별도의 類目을 두어 史部に 편재했는데 이를 계승한 것이다.”⁷⁴⁾라고 했다. 이후에 宋代 정초의 『國史經籍志』에서도 時令이 『中興館閣書目』에서 시작했다 여겼던 것이다. 姚名達 역시 “歲時は 『崇文總目』에서 시작되어 『陳錄』에서 時令으로 바뀌었다”⁷⁵⁾고 했다. 하지만 宋代 이전에 時令의 도서는 子部の 農書類에 속해 있었다. ‘時令’은 북송의 官修인 『崇文總目』에서는 史部に “歲時類”를 두었다가 『中興館閣書目』에서 이르러 비로소 명칭을 “時令類”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송대 이전에 “時令”과 관련된 서목은 모두 子部の 農家類에 편제되었다가, 송대 『崇文總目』이 처음 “歲時”라는 類目을 설치했고, 『直齋書錄解題』에서 비로소 “時令”으로 개명했고, 『總目』에 이르러 이를 계승한 것이다

⑫ “地理類”는 <표 8>처럼 『七錄』에서 “土地部”로 설치되었다가 『隋志』에서부터 이를 “地理類”로 바뀌었고 이후 변함없이 사지목록에 설치되었다가 『總目』에서 “地理類”로 설치되었다. ⑬ “目録類”는 『七略』에서 “簿録部”라는 편목으로 시작하여 『新舊志』에서 비로소 “目録類”로 바뀌었다. 『明志』는 목록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總目』史部に 이르러 다시 “目録類”를 설치했다. ⑭ 職官은 그 설치시기와 변화가 거의 없었던 유목인데, 『七錄』에서 시작해 계속 연용되며 『總目』까지 이르렀다.

⑮ 政書類를 설치를 통해서 『總目』史部는 전대로부터 전래된 사지유목의

73) 『總目史部·載記類序』, 903.

74) 陳振孫, 『直齋書錄解題·時令類敍』: “前史時令之書, 皆入“子部農家類.” 今案諸書上自 國家典禮, 下及里閭風俗悉載之, 不專農事也. 故《中興館閣書目》別爲一類, 列之“史部,” 是矣. 今從之.”

75)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102.

전통을 계승했다. <표 8>의 政書類는 「秘閣書目」에서 처음 출현했는데, 「七錄」의 “儀典”과 「直齋書錄解題」의 “儀注”와 혹은 「七錄」의 “法則,” 「直齋書錄解題」의 法令, 혹은 기타 사지목록에서 볼 수 있는 “刑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總目」 史部는 이를 종합하여 “政書類”로 포괄했다.

⑰ 史評에 대해 姚名達은 晁公武의 「群齋讀書志」에서 시작했다고 했다.⁷⁶⁾ 반면에 王錦貴은 「史通」이 출현한 이후 등장한 새로운 史體가 史評이라고 평가하면서, 「總目」이 이를 계승하여 새롭게 史評이란 독립된 類目を 설치했지만, 「總目」보다 明代의 사찬목록인 「萬卷堂書目」과 「百川書志」, 「澹生堂藏書譜」에서 史評이 기원했다고 했다.⁷⁷⁾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즉 「群齋讀書志」에서 史評을 개설했다고 했지만 晁公武 역시 전대인의 말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⁷⁸⁾ 앞서 언급한 것처럼 「文獻通考·經籍考」에서 晁公武는 “전대 사서에 史鈔類가 있었고 이를 集部인 文史類에 배치했다.(중략) 宋代에 사학상 評議가 흥성해서 史評의 발전해서 文史類안에서 史論을 선발했다”⁷⁹⁾고 했다. 다시 말해 馬端臨은 史評類가 사부에서 독립하여 類目を 형성했지만, 史評의 기원은 集部の “文史”라고 했다. 이후 “史評類”는 「遂初堂書目」에 이르러 이를 史鈔類로 바꾸었고, 「文獻通考 經籍志」는 이를 통합해서 “史評史鈔類”로 개명했다. 「宋志」와 「明志」는 “史鈔”만을 설치했지만 「總目」 史部に 이르러 “史評”과 “史鈔”類로 양분했다.

4.4 「總目」 史部の 구성적 특징 - 분석적 서지의 지향

「總目」 史部는 15類目 27子目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유목의 설치는 역대 사부목록의 계승과 발전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또한 현실적 수요에 부응해 새로운 類目を 증가시킨 학술발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이런 유목의 설치는

76)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102.

77) 王錦貴, 「中國歷史文獻目錄學」, 270.

78) 「群齋讀書志·史評類」: “故自文史類內摘出論史者爲史評, 附史部.”

79) 「文獻通考·經籍考」: “前世史部中有史鈔類, 而集部中有文史類.”

실사구시적인 준거를 통해서 類目の 기원분석과 존재와 병합 등에 원칙을 설명함에 있어서 비평서지학(critical bibliography), 분석서지학(analytical bibliography)의 입장을 지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⁸⁰⁾ 『總目』 史部는 새로운 史體의 출현을 유목과 자목의 신설과 삭제를 통해 사학발전을 반영했다. 이점은 도서분류 체계의 변화라는 목록학을 통해서 학술변화를 파악 가능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⑩ 譜系類 는 『隋志』에는 譜系로 처음 설치된 이후, 『明藝』등의 사지목록에 이를 연용했다. 이외에도 官修와 私撰에도 대다수 “譜系”를 설치했다. 譜牒은 皇帝, 將相, 門閥, 地方望族의 姓氏와 宗族世系를 수록한 저술이다. 劉知幾는 이를 家史로 파악했고, 장학성은 이를 “一家一姓之史”으로 여겼다. 위진남북조에 이르러 門第가 중시되며 譜學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鄭樵는 隋唐이래 譜系와 簿狀이 혼인과 선관에 사용된 상황을 개괄하면서 譜學의 성행을 언급했다.⁸¹⁾ 그래서 『隋志』 史部에는 譜系類를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唐代에 이르러 科擧制가 성행하며 門第의 중요성이 축소되면서 후대로 갈수록 譜牒學이 점차 쇠락하고, 민간의 家譜와 族譜이 편찬이 보편화 되면서 결국 『總目』 史部는 譜系類를 類目에서 삭제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總目』 史部는 특별한 譜系관련 도서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明代의 보첩서인 『天潢玉牒』의 폐단을 언급하면서 그 유목을 폐지하고서 別史類에 부속해야하는 근거를 언급했다.⁸²⁾

둘째, ③ 記事本末類의 증설 역시 사학발전이 새로운 경향의 반영이다. 紀傳體와 編年體는 중국고대 대표적인 체제로 후대로 계승되었다. 劉知幾는 『史通』에서 기전체의 단점으로 사건의 분산과 중복수록을, 편년체는 사건의 전말 파악의 어려움을 각각 지적했다. 이런 단점극복을 위해 송대에 이르러 袁樞는 紀事本末體를 만들었다. 章學誠은 이를 “사건을 단위로 제목을 정해서 특정 목적에 두지 않았다

80) “분석서지학”과 “비평서지학,” 그리고 “역사서지학(historcal bibliography)” 등의 개념은 서지학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한울아카데미, 2004)를 참고했다.

81) 『通志』卷『氏族序』: “自隋唐而上, 官有簿狀, 家有譜系. 官之選舉, 必由于簿狀; 家之婚姻, 必由于譜系. 歷代并有圖譜局, 置郎、令史以掌之. 仍用博通古今之儒, 知撰譜事.”

82) 『總目』卷50『史部·別史類存目』: 『天潢玉牒』提要後案, “此書述明代世系, 於例當入『譜牒』. 然譜牒傳本寥寥, 不能自爲門首, 故附著『別史類』中. 蓋其文與本紀, 世表相出入也.”

… 문장은 기전체보다 간략하고, 사건은 편년체보다 관통했다”⁸³⁾라고 했다.

셋째, ⑨史鈔와 ⑮史評는 「隋志」에서 처음 출현한 類目인데, 「總目」史部는 史鈔의 기원은 비교적 오래전으로 공자체서 기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⁸⁴⁾ 이후 그 수량이 증가하자 「宋志」에 이르러 「雜史」에서 독립해 새로운 유목으로 설치한 것이 바로 사초류였다. 「文獻通考 經籍考」에서는 史鈔類와 史評類를 통합하여 “史評史鈔類”로 설치했다. 원래 史評類의 시작은 <표 8>처럼 시기적으로 晁公武의 「群齋讀書志」에서 엮고, 초기 사지목록에서 사평보다는 사초류가 더욱 중시되기도 했다. 「明志」에는 사초류만 설치했다. 「總目」史部에서 史鈔를 특정문헌의 일부를 발췌하는 史體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⁸⁵⁾ 사평류는 “品牒舊文, 捫彈往迹”⁸⁶⁾라 하면서 史籍, 史法, 史筆, 史學, 史實, 史人 등의 평가한 것으로 보았다.

넷째, 「隋志」史部に 설치한 “起居注類”는 군주의 언행과 행동을 기록한 사서를 지칭한다. 隋唐이래 기거주의 편찬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宋志」부터 사지목록에 더 이상 기거주를 두지 않았다. 「總目」史部는 이런 상황을 주목하고 기거주를 編年類 아래에 두어야 하는 이유와 그 선례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⁸⁷⁾

마지막으로, 傳記類는 「總目」史部에서 5개의 子目 중에 “總錄”은 이전 사지목록에 설치된 것으로 그 유래를 소개했다. 특히 「史記」에서 시작해서 상세한 자목들을 傳記類로 통합했던 실례와 “總錄”이란 자목의 유래가 「冊府元龜」에 있음을 고증하고 있다.⁸⁸⁾

83) 章學誠著, 葉瑛 校注, 「文史通義·書教」: “因事命篇, 不爲賞格…文省於紀傳, 事豁於編年.”

84) 「總目」卷66 「史部·史鈔類序」: “帝魁以後書, 凡三千二百四十篇, 孔子刪取百篇. 此史鈔之祖也.”

85) 「總目」卷66 「史部·史鈔類序」: “離析而編纂之…簡汰而刊削之…采摭文句而存之…割裂詞藻而次之…含咀英華, 刪除冗贅…博取約存, 以資循覽.”

86) 「總目」卷66 「史部·史評類序」.

87) 「總目」卷47 「史部·編年類序」: “實存溫大雅一書, 不能自爲門目. 稽其體例, 亦屬編年, 今合併爲一, 猶「舊唐書」以實錄附起居注之意也.”

88) 「總目」卷58 「史部·傳記類二」, 總錄之屬後案: “合衆人之事爲一書, 亦傳記類也, 其源出「史記」之儒林, 游俠, 循吏, 食貨, 刺客諸傳. 其別自爲一書, 則成於劉向之「列女傳」. 「冊府元龜」之總錄之名, 今取以名之.”

『總目』史部の類目の 연구를 통해서 史書의 형식 및 체례의 기원과 설치시기를 고찰 할 수가 있었고, 또한 類目の 증설과 폐지 및 합병의 공정한 평가와 함께 해당 사서의 장단과 우열, 득실 등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었다. 『總目』史部の類目の 설치란 단순한 유목의 선택과 나열은 아니었다. 『總目·凡例』에는 해당 도서의 유래와 판본의 득실과 다양한 학설을 종합하고, 문자의 교감, 편목의 구성 등을 상세하게 고증한 이후에 비로소 해당도서를 설치한 類目에 배치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⁸⁹⁾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국고대의 역사문헌의 이해와 『總目』史部の類目は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 외에, 특히 도서의 연대, 기원, 출처, 진위를 밝히는 “形態書誌學”의 조건을 충분히 구비했다고 할 수 있겠다.⁹⁰⁾

5. 소 결

사지목록이란 중국고대 正史체례 중에 『經籍志』와 『藝文志』등 正史目錄을 중심으로 國史·政書·補志목록서 등의 목록서를 포괄한다. 중국의 목록학의 기원은 체계적인 도서분류법의 모색과정에서 출현했고, 이런 전통은 일찍이 6분법, 7분법, 4분법, 12분법 등의 다양한 분류체계로 나타났다. 이들 분류법은 目錄學史上 상하 전승관계를 유지하면서 후대 도서분류 체계와 목록학 형성의 근간을 이루었다.

도서분류법의 형성과정에서 史書의 분류체계가 독립적으로 확립된 것은 비교적 후대의 일이다. 西漢의 「七略」은 도서 분류와 사지목록의 기원이 되었지만, 史書는 儒書와 諸家書의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史書가 史部로 독립한 것은 魏晉시기 이후로서, 「七錄」과 「中經新簿」의 목록서가 출현하면서였다. 唐

89) 『總目·凡例』: “每書先例作者之爵里以論世知人。次考本書志得失, 權衆說之異同, 以及文字增刪, 篇帙分合, 皆詳爲訂辨, 巨細不遺。”

90) 『總目』史部の “形態書誌學”적인 성격은 類目の 설치라는 측면보다 書名·版本·卷數·文字考證 그리고 敍, 傳, 論, 讚 등의 史評에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대에 이르러 「隋志」를 통해 經史子集 四部の 분류체계가 확립되면서 史部는 명실 공히 안정된 분류체계로 정착되었다. 「隋志」史部の 類目 분류는 전대의 분류법을 종합하는 동시에 이를 후대로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隋志」의 영향은 宋代에 이르러 「通志·藝文略」를 통해서 “類例旣分，學術自明” 등의 목록학 사상을 출현시켰고, 다양하고 상세한 史部類目を 출현시키기는 시발점을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사지목록의 「隋志」史部는 「正史」史部和 史部類目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 저록형태는 장서목록과 서목의 나열이라는 측면에서 서구의 열거서지학(Enumerative bibliography)로서 그 전통은 후대로 계승되어 「總目」 史部에서 집대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總目」 史部는 15類目과 28子目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런 분류세목은 「隋志」를 비롯한 「正史」 史部 및 「通志·藝文略」 등의 史志目錄에서 기원했다. 이점은 <표 8>에서 다양한 목록서의 類目과 子目の 상호 대조와 비교를 통해 충분히 고찰 할 수 있었다. 「總目」 史部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유목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正史」 史部를 중심으로 官藏目錄과 私家目錄書를 선별하여 類目の 기원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세목의 기원에 관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표 8>처럼 그 類目の 기원과 전승관계의 다양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 성과에 적지 않은 오류를 지적했고, 「總目」의 史部類目이 출현하는 기원적 다양성과, 類目 존재를 통해 역대 목록서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고찰할 수 있었다.

중국의 전통목록학은 清代의 「四庫全書」와 「總目」의 편찬을 통해서 새로운 수준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總目」, 「凡例」와 史部 각 類目の 「敍」에서 그 기원의 분석과 존재, 병합 등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譜系類의 폐지나, 紀事本末類의 신설, 史鈔史評類의 병합과 起居注類의 예속문제 등에 관한 論贊이 그것이다.

「總目」 史部の 論贊은 이러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비평적 서지학, 분석적 서지학의 지향하면서 근대적 목록학을 잉태하고 출현시키는 맹아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앞으로

「總目」史部に 수록된 “敍,” “傳,” “論,” “贊,” “義例” 등의 분석을 통해 史書에 관한 우열과 득실의 평가한 史評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어, 당시 학술사의 변화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역사서지학(historical bibliography)이란 측면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漢書」, 「隋書」, 「舊唐書」, 「新唐書」, 「宋史」, 「明史」, 中華書局.
鄭樵. 「通志」. 中華書局, 1990.
馬端臨. 「文獻通考」. 中華書局, 1986.
四庫全書研究所整理. 「欽定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1997.
尤 袤. 「遂初堂書目」(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1985.
魚 竑. 「國史經籍志」(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1985.
黃虞稷 著. 瞿鳳起 潘景奩整理. 「千頃堂書目」. 上海古籍出版社, 2001.
北京大學圖書館係. 武漢大學圖書館學係合編. 「圖書館古籍編目」. 中華書局, 1985.
陳振孫. 「直齋書錄解題」(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1985.
晁公武 孫猛校註. 「群齋讀書志」. 上海古籍出版社, 1990.
王堯 臣等奉敕撰. 「崇文總目」(文淵閣四庫全書本).
周中孚 著, 黃曙輝 標校. 「鄭堂讀書志」. 上海書店出版社, 2008.
章學誠 著, 王重民 通解. 「校讎通義」. 上海古籍出版社, 1987.
章學誠 著. 萊瑛 校注. 「文史通義校注」. 中華書局, 1985.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臺灣商務印書館, 1971.
鄭鶴聲. 「中國史部目錄學」(民國叢書第二編). 上海書店, 1989.
王錦貴. 「中國歷史文獻目錄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徐召勛. 「學點目錄學」. 安徽教育出版社, 1983.
來新夏. 「古典目錄學淺說」. 中華書局, 1981.

- 周少川. 「古典目錄學」. 中州古籍出版社, 1996.
- 總編輯委員會. 「中國大百科全書」(圖書館學情報學檔案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6.
- 楊燕起, 高國抗. 「中國歷史文獻學」. 北京圖書館出版社, 1989, 212.
- 汪辟疆. 「目錄學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
- 倪士毅. 「中國古代目錄學史」. 杭州大學出版社, 1998, 157.
- 張舜徽. 「史家三書評議」. 中華書局, 1983, 38.
- 張傳峰. 「四庫全書總目」學術思想研究. 學林出版社, 2007.
- 陳曉華. “〈四庫總目學〉研究述略.” 「西南師範大學出版社」第4期, 2006.
- 蔣宗福. “新時期中國文獻學研究綜述(1978-2005).” 「綿陽師範學院學報」第4期, 2006.
- 陳曉華. “20世紀〈四庫總目學〉研究述略.” 「圖書情報工作」第11期, 2002.
- 高路明. 「古籍目錄及其功用」. 王國良, 王秋桂, 「中國圖書文獻學論集」. 明文書局, 1986.
- 서지학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 한울아카데미, 2004.
- 釋道宣著, 이한정 옮김. 「廣弘明集」卷3. 동국역경원, 1999.
- 千惠鳳. 「韓國書誌學」. 민음사, 1991.
- 켄트 가이(R. Kent Guy)著 양휘웅 역. 「四庫全書」. 생각의나무, 2009.
- 卞麟錫. “「四庫全書」의 數量的 考察.” 「史叢」第30輯(1993).
- 이명규. “지식분류에 대한 동서양의 비교.” 「한국비블리아」 제11-2호(2000).
- 鄭石元. “「四庫全書」에 대하여.” 「인간과 경험」第3輯(1991).
- 崔眞娥. “宋代 이후 목록서에서의 소설의 자리 찾기.” 「中國語文學論集」 제15호(2000).

